



5월 26일 4명의 성직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부 간부 등 31명이 삭발 농성을 하고 있다.



5월 30일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꽃다발을 받으며 조계사로 들어오고 있다.

“새만금 살리자” 각계각층서 지원 ‘붐몰’

D-day(삼보일배 65일째)

5월 31일 조계사를 출발한 삼보일배단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중단 촉구 및 삼보일배 종교인 기도회'에 참석했다. 1만여 명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등장한 4명의 성직자들은 행사 이후 청와대 앞과 정부중앙청사 등을 삼보일배하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 즉각 중단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규상기확단 구성을 촉구했다.

반이 넘는 147명(54.1%)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잠정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져 기쁨이 배가됐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5월 29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98명, 민주당 40명, 자민련 5명, 개혁국민정당 2명, 민국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47명이 공사 중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는 가운데 전북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농·어민들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1000인 선언'을 했다.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월 26일 오전 삼보일배단 150여명이 국회의사당 주변을 삼보일배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과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부의 간부 등 31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신교 사거리에서 집단 삭발을 열었다. 삭발 농성단은 청와대에 항의사한을 전달했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D-1(삼보일배 64일째)

5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출발한 삼보일배단은 오전 11시 25분 조계사에 도착했다. 수경스님은 대중전 참배 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했다. 오후 7시부터는 조계사 앞마당에서 '생명 평화 영원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 환영 및 회향 전야 시민 한마당'이 열렸다. 법장스님의 법문과 108참회 정진 등으로 이뤄진 1부 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삼보일배 장차곡 문화공연이 열렸다.

31일 삼보일배단 환영·회향 '시민한마당' 국회의원 147명(54%) 공사중단 찬성 뜻 방조제 건설 중지 전북지역 1000인 선언

간척사업 최대규모를 30만㎡로 제한하는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을 마친,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부칙에서 새만금 등 이미 허가된 간척사업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은 금지토록 규정했다. 한편 충북환경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회원 30여명은 청주 상당공원에서 간척사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중 7명은 삭발 시위를 벌였다.

일의 한 갯벌전문가가 갯벌의 보존 가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한국 법정에 선다는 소식이 주목을 끌었다. 전북 새만금 지역 주민 3천5백명이 "새만금 개발사업은 부당하다"며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독일의 갯벌 전문가인 아돌프 쾰러만 박사에 대한 원고측의 증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같은날 이후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국회 환경경제위원회) 회장은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삼보일배단이 시정앞에 도착하는 날까지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에게 서명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D-2(삼보일배 63일째)

삼보일배단이 서울역을 비롯 서울시 내를 관통하는 가운데 아현교차로 부근에서 동화사와 동화사 승가대학 확인 스님과 불자 수백명이 동참해 수경스님의 힘을 북돋웠다. 또 국회의원 272명 중 절

D-3(삼보일배 62일째) 5월 28일 삼보일배단이 한강을 건너

D-5(삼보일배 60일째)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생명 죽어 가는데 나는 어디에...

특별기고

이문재 (시인·시사저널 취재 1부장 직대)



강북삼성병원 952호실. '절대 안정' '면회사절'이라는 낱말이 나란히 걸려 있는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진행중인 전북 부안 해장 갯벌에서 출발한 지 55일, 경기도 과천 관문체육관 앞에서 의식을 잃은 스님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있었다. 10개월 전, 스님은 북한산 관동 도로를 막기 위해 서울역에서 조계사까지 삼보일배를 하다가, 조계사 입구에서 쓰러져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평소 안면이 있는 진행팀의 양해를 구해 병실로 '잠입'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거슬릴 정도로 병실 안은 조용했고, 또 어두웠다. 스님은 모로 누워 있었다. 스님의 검게 탄 얼굴과 부르튼 손을 내려다보며, 한 달 전 충남 보령을 떠날 때 다행했어를 타고 삼보일배 행렬의 맨 앞 배 행렬 뒤를 따라 걸었다. 스님과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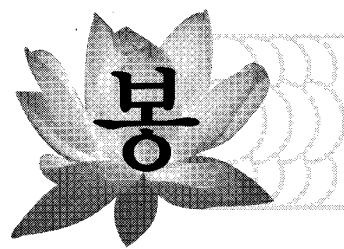
않았는데 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보령에서 흥성으로 넘어가는 21번 국도 위에서, 나는 죄인이었다. 스님은 6시 경에 눈을 떴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수녀님들과 스님 몇 분이 다녀갔다. 묵언 중인 스님은 병문안을 온 손님들에게 웃음과 손짓으로 답했다. 저 녀 회진 때 주치의는 '일주일 이상 폭 쉬셔야 한다. 면회객들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병실 전등도 다 꺼놓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스님은 이틀 날 활체어를 타고 삼보일배 행렬의 맨 앞 배

조용한 삼보일배 유례없이 강력한 시위 시속 1km 느린 걸음 큰 고통·불편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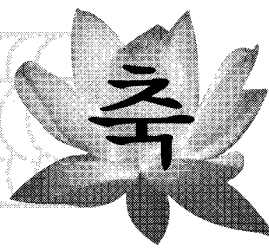
남이 세 걸음 걸고 한 번 절하는 속도에 맞추다 보니, 나는 일곱 걸음 걸고 한 번 기도해야 했다. 칠보일도. 모내기를 준비하는 보령 일대 들판은 분주했다.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행렬의 리듬과 숙연한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다.

삼보일배는 고행이자 수행이며, 시위다. 유례가 없는 '강력한' 시위이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또 가장 낮은 것은 고통이었다. 빨리 달리는 것 못지 않게, 시속 1km로 걷는 것도 몸에 큰 무리를 가져왔다. 평소 걷는 속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빠르기는 매우 낮고 불편했다. 하지만 내 몸의 불편함은 두 분 성직자의 고통 앞에서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삼보일배를 따라가며 칠보일도를 하는 동안, 나는 새만금 간척 사업과 나라의 관계를 생각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기대 도시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윽박'을 충실히 따르는 소시민이었고 소비자였을 따름이었다. 죽어가는 물과 흙에 대해 나는 무심해져 있었다. 내가 밟고 있는 일상적 삶의 터전이 바로 새만금과 다르지

는 자세, 묵언 수행까지 병행하면서 삼보일배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위로 자리 잡았다. 스님과 신부, 목사와 교구가 참여하는 삼보일배는 종교 간 벽을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가 사회 현실과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다. 삼보일배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당장 중단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보일배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삼보일배는 그 느리고 조용한 '모습'만으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 탐·진·치 삼독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또 어디에 있을까. 네 성직자가 지난 60여 일 동안, 전북 부안에서 서울 광화문에 이르는 305km의 길 위에 남긴 '은 몸의 흔적'은 경(經)이 아닐 수 없다. 네 성직자가 눈물과 땀으로 쓴 저 경을 읽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삼보일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금강대학교 개교 기념 불교 학술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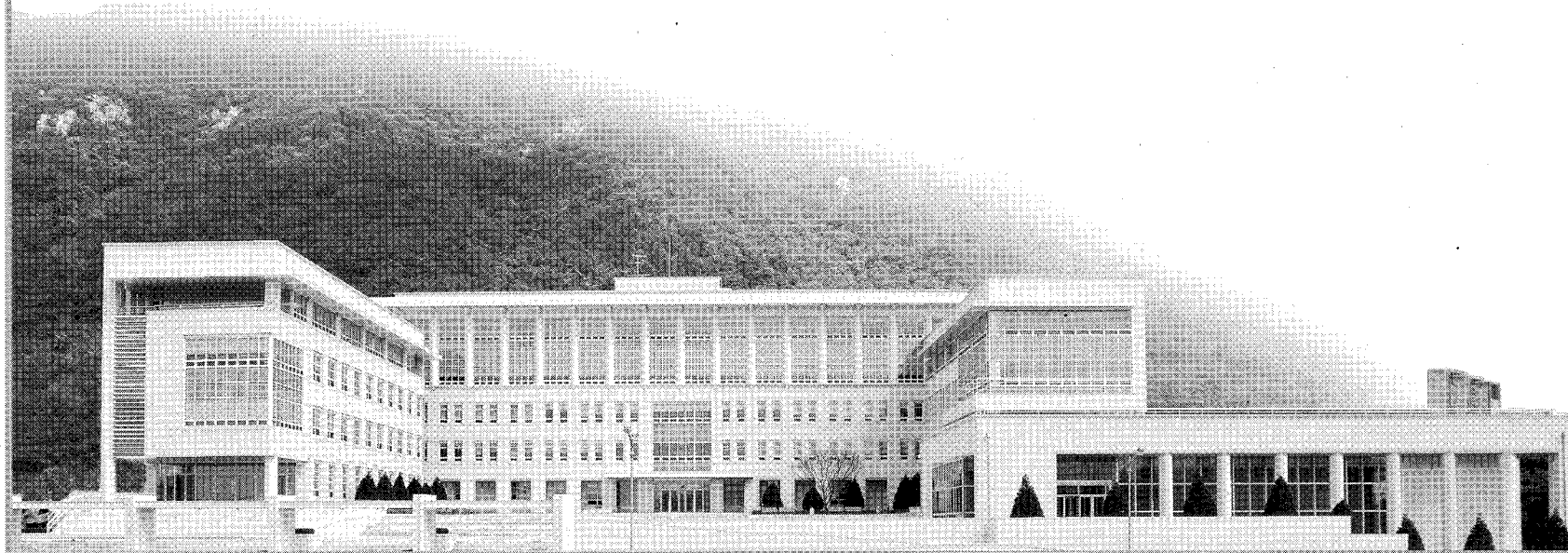
금강대학교 개교를 맞이하여 불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천태종의 위상과 앞으로 불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학계의 저명 학자들이 참석한 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태학에 관심 있는 불자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및 발표 주제

제1부 상월원각대조사와 천태종	
이봉춘(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천태종 중창의 역사적 의미"
최기표(동국대 강사)	"상월원각대조사의 생애와 업적"
제2부 21세기와 불교	
권기홍(동국대 교수)	"21세기와 불교의 진로"
권탄준(금강대 교수)	"미래사회의 불교의 수행"
최종석(동국대 연구원)	"21세기와 불교의 사회화"

— 일 정 —

- 일 자 : 불기 2547년 6월 11일(음 5월 12일) 수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 장 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령리 금강대학교 대강당
- 문의처 : TEL (041)731-3032 FAX (041)731-3049



금강대학교 GEUMGANG UNIVERSITY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령리 14-9 www.geumgang.ac.kr